

영광군, 한빛원전 바닷물 사용 2년만 허가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건에 지역민 불신 반영
 '23년 간 사용 요청' 한수원 막무가내 행태 비판 목소리

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을 2년 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내렸다. 원전이 위치할 자치단체가 통상 4년-영구적인 허가까지 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광 앞바다를 장기간 사용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불신'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발 위험에 노출되고도 12시간 동안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려 23년 2개월 간 원전 가동을 전제로 바닷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한수원의 '막무가내'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군은 한수원 한

빛원전본부에서 신청한 '냉각해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향후 2년 간 (2019년 5월 23일-2021년 5월 22일) 영광 지역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22일 허가했다. 한빛원전측은 이번 허가에 따라 2년 간 연간 115억8000만 원의 바닷물을 사용, 한빛원전 6호기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게 됐다. 한빛원전측은 지난달 19일 영광지역 바닷물을 오는 2042년 7월 30일까지 무려 '23년 2개월' 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영광군에 요청했다. 영광군은 그러나 ▲한빛원전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건으로 '즉각 폐쇄'를 요구할 정도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점 ▲삶의 터전을 잃을 지 모른다

는 우려에도 잦은 사고 및 고장과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한 점 등을 반영, 2년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영광군이 한빛원전측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과 관련, 2년 만 연장한 것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8년 만이다. 영광을 제외한 원전이 위치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11년-15년(고리·월성·새울본부)간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한울본부는 영구적인 사용을 허가한 상태다. 여기에 온배수로 인한 어장활동폐사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역민들의 불만도 영향을 미쳤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 결과가 완료되는 8월 말까지만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가동으로 치어 폐사와 어장 활동폐가 발생하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반영, 수협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해양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이 진행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게 어민들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영광군이 한수원에서 요청한 사용기간을 대폭 줄여 허가했음에도, 한빛원전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건으로 보여준 한수원 행태를 고려하면 허가를 내주지는 않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은 그러나 '불허' (不許)하고 소송으로 갔을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자칫 원전측과 추진중인 '상생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리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북한 참여 공식 요청

조직위·FINA 공동발표... "정치·이념의 벽 뛰어넘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국제수영연맹(FINA)이 23일 북한의 대회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대회 개막 50일을 남겨두고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 북측을 향해 조직위와 FINA가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초청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관련기사 5면> 북측은 한때 대회 참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FINA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FINA와 조직위는 북측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1개월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참가 결정을 했던 전례를 상기하며 막판까지 참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대를 걸고 있다. 이용성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과 코넬 마르클레스쿠 FINA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가치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체육이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육을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이 참가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이 활짝 열렸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는 한민족의 뜨거운 만남이 다시 한번 광주에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직위와 FINA가 이날 공동발표문을 내고 북측의 참여를 요청한 것은 북측 수영연맹 관계자가 앞서 FINA측에 '이번

대회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데다, 개막 50일을 남겨두고도 입장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넬 FINA 사무총장은 "(시점과 채널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해온 바 있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대회 참가는 (단순 의사 표명이 아닌) FINA의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대회 참가 마감은 있지만 FINA회원국이라면 등록 마감일 지나서도 접수할 수 있다. 북한 등 회원국의 대회 참여를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회 개막일까지 북한 참여를 기다려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대변인을 지낸 성백유 광주수영대회 조직위 대변인은 "평창올림픽 사례를 기억해 달라"면서 "북측의 참가 여부는 대회 개막 당일 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광주를 방문해 종목별 경기 입장권 구매 현황과 이날 말 완공 예정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과 야외수경기장, 미디어센터 건립 현장 등을 살펴보았다. 박 장관은 "광주시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가장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세계수영선수권을 잘 개최해 스포츠 유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 글꼴 소송전 고심 ▶6면

미술관 기행 - 런던 내셔널갤러리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U-20 월드컵 내일 포르투갈전 ▶20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 부시 "통일 한국 꿈 지지"

여야 정치권 대거 참석
 추모객 전국서 1만여명 몰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3면>

추도식에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문화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정당 대표,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부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 전국에서 몰려든 추모객 1만여명도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특별한 분위기로 출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에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미국은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추모 공연에 이어 등단한 문화상 의장은 "이별은 너무도 비통했고 황망했다"고 회고



23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권양숙 여사와 손녀 노서은 양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뒤, "위대한 국민은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와 광장에 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님의 도전과 성취, 고난이 저희에게 기쁨과 자랑, 회한과 아픔이 됐고. 그것이 저희를 산맥으로 만들

었다"며 "사람들은 처음으로 대통령을 마치 연인이나 친구처럼 사랑했다"고 애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PORE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키온갤러리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